

'시립미술관 30년의 역사' 아카이브전...11월20일까지 미술관 로비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광주시립미술관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 30년의 역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카이브전은 오는 11월20일까지 미술관 로비에서 개최된다.



'광주시립미술관 30년의 역사' 아카이브전 전시전경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광주시립미술관 30년... '마주보고 멀리보다'

연혁·전시·창작지원 등 5개 분야서 활동발자취 담긴 사진·영상 등 선보

1992년 8월1일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전시, 소장품, 교육, 작가지원, 문화행사 개최 등 한국 및 지역을 선도하는 미술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개관 시기부터 2021년 최근까지 30여년 동안의 역사를 연혁·전시·교육·창작지원·분관 5개 활동 분야로 분류했다. 미술관의 다양한 활동 역사를 사진, 영상, 문서 등 기록물로 선보인다.

국내 공립미술관 중 최초로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은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초창기 원로작가 기획전과 더불어 오지호, 허백련 미술상초대전이나 광주시전 등을 개최했으며, 전국 최초 창작스튜디오 작가육성, 미술

이론 및 실기강좌를 통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했다.

2000년대 들어 상설 전시 체계화, 남도미술 조명 기획전, 하정웅청년작가전 등이 진행됐으며, 3차례에 걸친 하정웅컬렉션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컬렉션을 자랑한다.

2007년 10월 중의공원에 새롭게 터를 잡은 본관은 다양한 기능의 공간과 첨단시설을 갖춘 국제무대로 뻗어나가는 가능성과 역량을 키웠다.

미술관 분관 전시는 기획전과 소장품전으로 구분되며, 연 15여회 정도 개최된다. 주요 기획전으로는 지역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원로·작가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와 그 연구를 정리한 아카이브전이 열린다. 매년 5월에는 광주정신을 기념하는 민주·인권·평화전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전문 강좌가 열리고 있으며 교양, 취미 등 연 200여개의 강좌, 가족과 함께하는 주

말체험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된다.

미술관은 앞서 팔각정, 양산동 창작 스튜디오를 개관해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했으며, 2017년 9월 중의공원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를 신축 개관해 지역 청년작가들의 국제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금남로분관, 상록전시관, G&J갤러리, 하정웅미술관, 광주시립사립전시관에 대한 사진, 문서 등 기록물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아카이브전과 함께 같은 기간 중 2022년 하반기 광주시립미술관 30주년 기념전 '이건희 컬렉션전', '권진규전'도 개최된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30여년 동안 각종 활동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중요 역사와 활동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를 통해 미술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향후 한국과 지역 미술을 선도하는 공공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1992년 8월1일 광주시립미술관 개관식.



2017년 광주시립미술관 이전 개관 모습.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광주여성가족재단,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시행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 대상

광주여성가족재단이 돌봄공백 최소화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돌봄서비스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다.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사를 파견해 아이들이 낯선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간호, 복약, 정서적 지원(놀이·책 읽어주기) 등

을 제공한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19년 광주에서 시작돼 부산, 울산, 전주, 창원 등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해 시행하고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소득 수준(시간당 1천400원-4천200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한 형제·자매·남매 등이 동시에 입원할 경우, 두 번째 입원한 자녀부터는 이용금액의 50%를 할인해 양육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케어를 전담하는 입원아동보호사는 소정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전문 보호사들이다. 현재 32명의 보호사가 활동 중이며 순번제로 파견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은 입원아동돌봄서비스(1899-5912) 전화 또는 광주아이키움 사이트에서 온라인 예약접수하면 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단순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차원을 넘어 저출산 극복,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인 만큼 최고의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봄옷을 잡히고 술을 사서 마시려 했더니만



장희구 박사 (466) 漢詩 향기품은 변안시조

겨우내 잔설(殘雪)과 함께 시름을 반복했던 산촌에도 매화 손님을 맞이하면서 봄이 찾아왔다. 봄 손님을 맞이하려고 부산을 떠는 모습도 간혹 살핀다. 뒷마루에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있던 할아버지도 마당가에 앉아 있는 손주들에게 이것저것을 시키면서 손님 맛을 채비를 하게 한다. 며느리는 장독대를 치우고, 아들은 농기구를 손본다. '넷물에 입한 대울타리는 누구네 집인가 / 희미한 것발이 살구꽃 속에 드러나 있다'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봄옷을 잡히고 술을 사서 마시려 했더니만'(春日山村)으로 제목을 붙여 본 칠언절구다.

작가는 청천(靑川) 하응림(河應臨:1536-1567)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문장이 뛰어나서 조선 중기의 학자들 중에 선망의 대상이 됐으며, 송익필 등과 함께 당대의 8문장으로 일컬어졌던 인물이다. 송나라 소식의 문장을 사숙했다고 하며, 시와 서는 물론 그림솜씨도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진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넷물에 입한 대울타리는 누구네 집인가 / 희미한 것발이 살구꽃 속에 드러나 있다 // 봄옷을 잡히고 술을 사서 마시려 했더니만 / 향기로운 풀 위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니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어느 봄날 산촌에서'로 번역된다. 어느 봄날 마음은 뒤숭숭했지만, 봄에 흥뻑 취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떠오르는 시상이 차마 주체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시상을 떠오르게 하려면 약중 한 잔은 필수품이었나, 술값이 없어 빈털터리다. 할 수 없이 살뜰한 봄옷을 주막집에 잡히고 술을 먹지 않을 수 없었으려니 시적 후회는 극에 도달하는 맛을 부린다.

시인은 선경의 시상을 넷물에 입한 대

春日山村(춘일산촌) 청천 하응림

넷물에 대울타리 누구의 집인가 희미한 것발이 살구꽃 속에 살구꽃 속엔 숨어 있다. 竹籬臨水是誰家 隱約靑帘出杏花 欲典春衣沽酒飲 不堪芳草日西斜 육전춘의고주음 불강방초일사사



울타리로 한 정 하 더니만 살구꽃 것발 상상해 내는 시주머니를 털어낸다.

넷물에 입한 대울타리는 누구네 집인가를 묻고, 희미한 것발이 살구꽃 속에 살포시 드러나 있다고 했다. 살구꽃 송이를 것발이라고 표현하는 시어의 구성에서 흥겨운 무릎장단을 치지 않을 수 없다.

화자의 심회는 컬컬한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났음을 알게 한다. 시주머니는 넉넉한데, 시적인 조미료가 조금은 부족했음을 알게 한다. 봄옷을 잡히고 술을 사 마시려 했더니만, 그마저도 향기로운 풀 위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해 기울는 그 모습이 시상 주머니를 만지는 것보다 훨씬 넉넉했음을 알게 한다.

\*한자와 어구

竹籬: 대울타리. 臨水: 넷물에 입하다. 是誰家: 이는 누구네 집인가. 隱約: 말이 분명치 않다. 靑帘: 주막을 알리는 푸른 기(酒帘)를 쓴 기. 出杏花: 살구꽃에 드러난다. 欲典春衣: 봄옷을 잡히고자 하다. 沽酒飲: 술을 사서 마시다. 不堪: 감당하지 못하다. 芳草: 향기롭다. 日西斜: 해가 서쪽으로 기울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한국학호남진흥원, 마한학술경연대회 논문 공모

내달 15일까지... 전국 대학·대학원생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마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술경연대회 논문을 공모한다. 올해로 제3회째를 맞은 대회는 마한 역사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와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마한 역사와 관련된 자유 주제와 관련분야 논문을 공모해 우수논문을 시상하는 행사다.

대상은 문화재청장상, 금상은 전남도지사상, 은상에게는 한국학호남진흥원장상을 수여한다.

접수는 오는 9월15일까지이며, 논문 발표 및 심사는 9월30일, 시상식은 10월6일 마한문화행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 관계자는 "고고학·인류학·문화사적 역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활용분야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참신한 연구주제와 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